

# 10 하나님 대신 자기를 좇게 한 여로보암

## Chapter

왕상 12:25~33, 13:33~34

찬송가 372장 (나 맡은 부분은), 찬양 11장 (예수 이름 높이세)

### 오늘 배울



### 말씀

1. 자기를 좇게 하려는 여로보암의 생각이 그와 온 집의 멸망을 가져왔음을 압니다.
2. 사람에게서 오는 영광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해야 함을 압니다.

### 마음 열기



전라남도 순천만에 있는 용산 전망대를 오르다 보면 두 갈래 길이 나옵니다. 왼쪽은 '명상의 길'이라고 쓰인 편안한 길이고, 오른쪽은 '다리 아픈 길'이라고 쓰인 경사진 언덕 길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길을 택하겠습니까? 무슨 이유로 그러한 선택을 했습니까?



## 말씀을 이해하기

열왕기에서 이스라엘 왕들의 생애를 평가할 때 언제나 두 가지 삶의 길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다윗의 길'이고 다른 하나는 '여로보암의 길'입니다. 다윗의 길이란 다윗이 일생 동안 지키며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말하는데 바로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더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의 방식입니다.

이와 반대되는 삶의 방식이 바로 '여로보암의 길'입니다. 솔로몬의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은 여로보암을 택하여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 열 지파의 왕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에게 다윗처럼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하면 그 집을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자 곧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만들어 섬김으로써 그 자신뿐 아니라 이스라엘 온 백성이 죄에 빠지도록 만들었습니다. 그가 우상을 만든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 때마다 남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으로 인해 훗날 왕권을 잃게 되는 것은 아닐까 불안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일을 막을 방법을 고안했는데, 바로 단과 벤엘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으로 섬기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은 백성의 마음을 자신에게 향하게 하려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자신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배반하는 삶, 바로 여로보암의 길입니다. 이 여로보암의 길은 그의 사후에도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반복해서 나타났으며, 결국 이스라엘을 멸망케 했습니다. 우리가 누구의 영광을 구하느냐에 따라, 즉 어떤 길을 택하느냐에 따라 우리 삶에서 축복과 저주가 결정됨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 공과말씀정리

## 말씀을 마음 판에 새기기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요 12:43)

for they loved the praise of men more than the praise of God (Jn 12:43)



## 말씀을 더 깊게 묵상하기

1. 다음 범위의 성경을 읽고 묵상한 후 제목을 붙이거나 내용을 요약해 보세요.  
혹은 느낀 점을 쓰거나 핵심 구절이라고 생각되는 절을 자유롭게 적어 보세요.

(시 49:16~20)

(마 6:1~4)

(요 17:1~5)



## 말씀에 맞게 내 생각 바꾸기

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6절까지를 세 번 읽고 다음에 답해 봅시다.

1.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가르치고 배워야 할 '바른 말'은 어떤 말일까요? 3절을 읽고 바른 말의 두 가지 표준을 적어 봅시다.
2. 위의 바른 말에 착념(마음에 두고 생각함)하지 않으면 잘못된 결과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 결과들이란 어떤 것들인지 4절과 5절을 읽고 요약해 봅시다.
3. 5절에 '경건을 이익의 재로로 생각하는 자들'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는 경건 자체에는 관심이 없고, 신앙을 통해 돈을 벌 수 있는지, 신앙이 자신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지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예를 성경에서 찾아보고 한 두 가지 사례를 기록해 봅시다.

예) 요한복음 2장) 성전 안에서 희생 제물을 팔거나 돈을 바꾸어 돈벌이를 한 사람들, 그리고 돈을 받고 이를 허용했던 대제사장과 종교인들, 사도행전 19장) 아데미 우상의 은감실을 만들어 돈을 번 데메드리오...등.

4. 나의 신앙생활 가운데 혹시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 대신 나의 영광과 유익을 위해 행하는 모습이 있지는 않는지 생각하고 기록해 봅시다.



## 말씀을 삶에 적용하기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약 2:26)

1. 오늘 배운 말씀을 이번 주 생활에 어떻게 적용할지 적어 보세요.

하나.

둘.

셋.

2. 지난 주에 적용하기로 한 내용을 돌아보고 평가를 적어 보세요.



## 말씀대로 살도록 기도하기

모든 일을 할 때 항상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인지를 생각하게 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리고 나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일은 없는지 생각하고 버릴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 우리들의 이야기

## 내 기준으로 판단하면

"프로크루스테스 침대라고 들어 보셨나요?"



로마신화에 나오는 프로크루스테스라는 괴팍한 사람은 지나가는 사람을 잡아서 자기가 만든 침대에 눕히고 침대보다 사람이 크면 잘라서 죽이고 침대보다 사람이 짧으면 늘려서 죽였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 기준에 맞추어서 모든 것을 판단하는 사람을 가리켜 프로크루스테스 침대와 같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 중에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드셨나요? 만들지 않았으면 사람이 죄를 안짓고 살 수 있었을텐데라고 말하며 원망합니다.

선악과를 만든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모르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기준을 자신의 기준에 맞추어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이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천국에서 함께 사는 사랑의 짝으로 사람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것을 모르니까 자기 생각대로 재고 잘라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그런 사람을 프로크루스테스와 같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사 55:8~9)**

## '자기 숭배'라는 이상

기독교 심리학자 중에 '폴 비치'라는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저서 'The Cult of Self Worship'에서 21세기의 가장 무서운 이단은 바로 '자기 숭배의 이단'이라고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큰일을 성취하고 성공하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 숭배'를 하게 됩니다. 자기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이 드러나야 할 자리에 자기를 드러내게 됩니다. 결국은 자신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경배를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유머가 있습니다. 어떤 과학자가 자신도 이제 인간을 만들 수 있다고 호언장담하며 하나님께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너도 한번 인간을 만들어 보거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과학자는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자신만만하게 흠을 집어 들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잠깐! 내 흠 말고 네 흠으로 만들어야지.”

우리는 높아질수록 자신을 낮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도 모르게 자라나는 교만의 씨앗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십시오. 이것이 자신을 온전히 지키고 보존하는 길입니다.





# Wednesday

수요말씀

Date.     |     |

제목 :

강사 :

본문 :

Handwriting practice area with 20 horizontal dotted lines.



# Sunday

주일말씀

Date. | |

제목 :

강사 :

본문 :

Handwriting practice area with horizontal dotted lines.